

* 전 세계 국가들의 박해와 차별의 정도를 기록한 월드와치리스트(World Watch List)는 약 3억 6,0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작년보다 무려 2,000만 명이 증가한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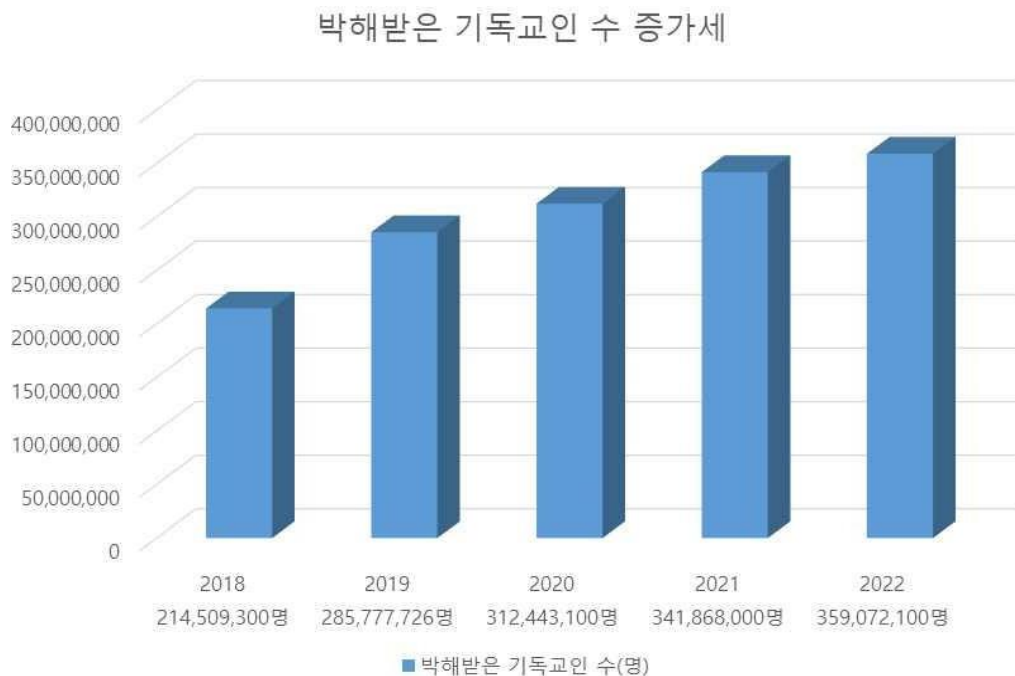
또한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 1명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뜻으로, 29년 전 첫 번째 월드와치리스트가 발표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의 박해지수를 기록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가속화되고 있다.

조사기간 : 2020년 10월 1일~ 2021년 9월 30일

1. 2022년의 특이점

1) 역대 최고 수준의 박해지수

-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 1명이 박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최근 몇 년간 꾸준한 증가세



2) 20년 만의 순위 변동

- 2022년 전 세계 박해지수 1위 '아프가니스탄'
- 20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순위 변동
- 주된 요인

- 2021년 8월 15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이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에 의해 함락.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난민이 되거나 죽음의 현실에 직면하게 됨.
- 전 세계 이슬람극단주의 세력들을 고무시킨 탈레반의 집권으로 기독교인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가 된 '아프가니스탄'
 - 탈레반 정부는 기독교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있음.
 - 기독교 신앙이 드러난 남성들은 거의 대부분 사형에 처해짐.
 - 소녀들과 여성들은 강간과 인신매매로 고통당하며, 전리품의 일환으로 탈레반 요원과 강제 결혼을 하게 됨.
 - 기독교인들이 주변국 난민캠프로 피신하고 있으나 주변국들은 모두 기독교에 적대적 국가들임.
 - 오픈도어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8월 이후 아프가니스탄 국내 이재민 3백 5십만 명이 발생했고, 이 중 국외 난민 2백 2십만 명이 난민 캠프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3) 점점 대담해지는 '탈레반'

-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정부 장악은 정체되었던 지하디스트 조직의 분위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지하디스트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힘이 됨.
- '지하드'는, 좁은 의미로는 '이교도의 이슬람 침략에 대한 저항', 넓은 의미로는 '이슬람 신앙을 방해하는 욕망의 절제'로 정의할 수 있음. 이들은 부패하고 미약한 정부를 대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특히 소말리아 정부와 동맹군인 아프리카 연합군과 대항해 싸웠던 알-샤바브 (al-Shabaab), 2002년 발리 폭탄테러를 일으켰던 인도네시아의 제마 이슬라미야(Jemaah Islamiyah)와 같은 이슬람원리주의 단체들은 탈레반과 연관되어 있음. 또 말리에서는 지하디스트들이 코로나 팬데믹 상태로 정부의 사회 안전망이 무너져 진공상태가 된 마을을 무자비하게 점령하고 있음.
- 나이지리아 전 해군 정보 책임자 코모도르 쿠리 올라운미 제독(Commodore Kunli Olawunmi)은 최근 지하디스트 세력이 확장되면서 나타난, 나이지리아 내 지하디스트 그룹들의 일치된 '탈레반화' 전략에 대해 "정부 요원들과 부족 그룹들이 연루되어 종교적 동기를 기반으로, 국가 치안과 질서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라고 밝힘. 나이지리아에서는 총 4,650 명의 기독교인이 죽임을 당했고, 이는 전 세계 총 희생자 수의 79%에 해당하는 수치임.
 - * 나이지리아의 탈레반화 참고) www.unhcr.org/refugee-statistics
- 지하디스트 그룹의 전략은 '서아프리카 & 사하라 남부지역'
 -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은 이미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과 박해가 심한 곳으로 지하디스트 폭력과 불안정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 보코하람, 풀라리(Fulani) 등 무장 세력들에 의해 학교,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이 납치, 살인을 당하고 생계수단 등을 파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나이지리아 차드, 카메룬,

니제르 남부지역과 사헬지대 주변국(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서부지역),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음.

- 말리(Mali, 박해지수 24위)의 사회질서는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고, 특히 그 주변국인 니제르와 부르키나파소로 반란이 확산되면서 '넥스트(next) 아프가니스탄'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음.
- 지난해 나이지리아에서만 총 4,650명의 기독교인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는 전 세계 희생자의 79%에 해당하는 수치임.
- 연합민주군(the Alliance of Democratic Forces)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DRC)과 중앙아프리카공화국(CAR) 모두 폭력지수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림.
 - ▶ IS(Islamic State)와 연합민주군(ADF)과 같은 진영은 한때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한번 실패했던 이슬람 칼리프 왕국(islam Caliphate)에 대한 꿈을 다시 꾸고 있는 것.

4) 난민 교회의 확산

- 지하디즘(Jihadism)의 확산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기독교 인구는 거의 사라짐. 지난 몇 년 간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의 수백 개 교회들이 문을 닫고, 나이지리아에서만 2022년 WWL 보고 기간 동안 470개 교회가 폐쇄됨.
- 이재민/난민 총 8,400만 명 발생 / 해외 난민 총 2,660만 명
 -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에 따르면, 2021년 약 8천 4백만 명이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으며, 그 중 2천 6백만 명이 국외로 쫓겨남.
-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들은 극단주의 이슬람의 폭력(사헬지역 주변국), 강제징집(에리트리아, 6위), 정부탄압(이란, 9위), 내전(수단, 13위), 신앙 때문에 가족으로부터의 박해를 피해 난민이 되고 있음.
- 기독교 이재민과 난민들은 이라크(14위), 시리아(15위), 레바논, 요르단(39위)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 계속 거주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인도주의적인 지원과 실질적인 도움마저도 거부당하고 있는 처지임.
- 미얀마(12위)에서는 기독교 지역(친, 카친, 카야, 샐)이 지속적인 분쟁의 표적이 되고, 미얀마군은 교회를 폭격하고, 목회자를 살해하고 억류함. 이번 WWL가 조사되는 기간 동안 무려 2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추방되었고, 그중 2만 명이 난민이 되었음.

5) 다양성의 소멸, 특히 '중국의 중앙 집중 종교 통제 모델이 세계를 이끈다.'

- 중국,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 하나의 신념'

- 중국(17위)은 '디지털 테크놀로지'요소를 포함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계획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진행 중임. 이처럼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중국민족주의 즉, 시민의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는 중국정부의 권위와 강제력이 커지고 있으며, 행동과 신념에 이르기까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음. 2021년 5월 새롭게 제정된 中 법안은 중국 종교 지도자들에게 "조국을 사랑하고 공산당 지도자와 사회주의 시스템을 지지할 것"을 요구함. (종교지도자들이 '민족적 단합'을 훼손하거나 국가를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유.) 또한 새로운 규정은 중국 내에서 중국 국민들의 외국인 접촉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 인도, '인도인이 되는 것은 힌두인이 되는 것'
 - 오픈도어의 최근 인도(10위)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민족주의 '힌두트바(Hindutva)'의 이념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고 설명함. 기독교인과 타 소수 종교를 향한 폭력의 흐름은 인도 전역을 넘어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묵인되거나 조장되고 있으며, 주류 언론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왜곡 선전되고 있음.
- 미얀마(12위), 말레이시아(50위), 스리랑카(52위), 중앙아시아국가들 등에서도 충성과 동질성에 대한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 하나의 신념'이 모방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이 신조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고 있음.

6) 코로나 제한 조치를 이용한 권위적 정부들의 교회 약화 전략

- 5)의 내용과 더불어 중국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엄격한 대응을 이유로 공식적인 삼자교회에도 재 운영 허가를 내주지 않음. 허난성과 장시성 지역 보고에 의하면, 지역 정부가 승인한 모든 종교적 시설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음.
- 특히 공산주의 이념 아래 있는 남미 국가들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조치가 교회를 감시하고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쿠바(37위)에서는 지난 7월 발생한 대규모 시위 후 사회정의를 위한 목소리를 높인 가톨릭과 개신교 교회 지도자들이 구금돼 고문을 당하고 과도한 벌금이 부과됨. 니카라과(61위)와 베네수엘라(65위)에서도 정부 여당이 가톨릭 주교들을 비방하는 캠페인을 조장하고, 교회 등록 허가를 취소하며 교회들을 폐쇄하는 일이 벌어짐.
 - ▶ 이처럼 소수 민족들은 점차 사회적 의심이 증가하는 사회 속에서 사회 기득권 집단과 소셜 미디어의 차별로 인해 고통 받고 있음.

2. 다른 주요 동향들

1) 박해지수 급증 국가 (아프가니스탄 外)

- 카타르(29위->18위)
 - 올해 월드컵이 개최되는 국가로, 특히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신체적, 심리적 폭력과 더불어 여성들의 경우 성폭력에 노출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47위->28위)
 -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중부지역 기독교인들은 두 차례의 공격을 받았으며, 마카사르 성당은 폭탄테러 공격을 받음.
- 미얀마(18위->12위)
 - 미얀마 군대는 기독교 마을과 교회들을 공격했으며, 20만 명 이상을 이재민 캠프로 내몰았음.
- 부탄(43위->34위)
 - 특히 기독교 개종자들은 지역 사회로부터 압력과 폭력을 당하며, 여성의 경우 성폭력의 위협에 놓이고 있음.

2) 신앙을 이유로 한 끊임없는 '압력'과 '폭력'의 증가

- 신앙을 이유로 살해된 기독교인의 수
 - 작년 4,761명 (WWL2021) -> 올해 5,898명 (WWL2022)으로 증가 :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나이지리아에서의 사망자 수가 대부분.
- 물리적 공격을 받은 교회의 수
 - 작년 4,488건 (WWL2021) -> 올해 5,110건 (WWL2022)
- 구금되거나 체포된 기독교인 수
 - 올해 6,175명 (WWL2022)
: 이 중 1,315명은 인도에서 구금 및 체포, 작년보다 44% 증가한 수치임.
- 이 외에도 기독교 공동체를 향한 끊임없는 압박이 일상 속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음. 직장 내 차별,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라는 가족의 압박, 구호품과 의료품 수령에 있어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고통, 교회 허가를 방해하는 정부 관료들의 압박은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

3) 북한 (아래 자료 별첨)

- 월드와치리스트 박해지수 2위 국가로 하향되었음에도, 올해 북한의 박해지수는 사상 최고 수치를 기록함. 새로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인해, 체포되는 기독교인과 폐쇄되는 교회들이 증가하고 있음. 체포된다는 것은 겨우 몇몇 사람만이 살아남는 북한 정권의 잔인한 '재교육수용소(노동수용소)'중 한 곳에 수감됨을 의미함.

4) 어려운 상황 가운데 희소식

- 기존 폭력지수가 높았던 이라크(11위->14위), 시리아(12위->15위), 이집트(16위->20위), 터키(25위->45위)는 폭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박해의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지만, 환영할 만한 일임. 특히 IS에 의해 훼손된 이라크 지역에 대한 교황 방문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이 방문은 이라크 재건을 위해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라크 땅으로 돌아오도록 격려하는 계기 됨. 또 콜롬비아의 글로리아 아고티(Gloria Agosti) 수녀는 이슬람 무장 세력에 납치돼 5년에 가까운 포로생활을 하다 지난 2021년 10월 말리(Mali)에서 석방됨. 글로리아 아고티 수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시련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말해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기도 함.